

2012.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2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2.1.31	대전MBC 대회의실	6/11	6	

○시청자위원 불참자(5명) 명단: 신현대,여운철,안정선,김경숙,방기봉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기획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임양재 보도국장, 정갑관 기술국장, 장래균 기획심의 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 건	-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신년특별기획-소통이면 만사형통>은 유효적절한 기획으로 강연자의 전달능력이 탁월했다. 이런 컨셉의 '토크콘서트'는 지역,공영방송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김재영,유치벽 위원)		
보도	<특별기획-날아라 나로호>는 우주선 발사 두번의 실패로 위축된 현 상황을 일본의 사례로 극복해야 하는 과정임을 잘 보여준 시기 적절한 프로였다. (유치벽 위원)		
교양	<시사플러스-개발과 보존,가로림만의 선택>은 지역의제인 조력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유의미했다. (유치벽 위원)		
보도	'상록수 밥상' '평생 한 풀었다-노인,한글 배우기' 뉴스는 충청의 아이덴티를 찾는 좋은 뉴스였다. (김진국 위원)		
보도	<신년기획-시,도지사 특별대담>은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지 못해 아쉬웠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청자 참여 등의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 (김진국 위원)		
교양	<시사플러스-2012 창업열풍,이대로 좋은가?>는 내용이 좋았으나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현역 국회의원의 등장은 옥의 티였다. (김진국 위원)		
교양	<시사플러스-우리들의 일그러진 교실>은 내용에 어울리는 부제 선정이 적절했고, 진행자의 의상 코디가 좋았다. (김진국 위원)		
교양	<시사플러스-우리들의 일그러진 교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사랑을 못받는 아이들이 폭력에 연관되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다. 학력위주의 교육제도가 안쓰럽다. (김경옥 위원)		
보도	서울MBC가 파업으로 뉴스가 짧더라도 한 꼭지 보도 후 지역 뉴스로 넘어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광 위원)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안지사,정봉주 전 의원 면회’ 아이탬은 방송을 한번 고민했어야 한다 생각한다. (김영광 위원)		
교양	<아침만들기-대전시 교육감 초대>는 최근 가장 큰 현안인 학력폭력에 대한 입장은 이야기 안 하고, 주요 계획만 나열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김영광 위원)		
보도 교양	지자체 단체장이 아침과 저녁에 계속 나오는 것은 어색하다. (김영광 위원)		
기타	‘게임과 폭력적인 아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도깊은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인순 위원)	보도답변 요망	
기타	일본인이 ‘한국의 발견’이란 책에서 한글을 극찬하였다. 한글 탄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어떨까 (장인순 위원)	편성답변 요망	
기타	일본은 우주선 발사를 6번 실패했다. 우리나라 우주선 발사 실패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보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묵묵히 일하는 과학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 (장인순 위원)	보도답변 요망	